

뉴스

교육환경 개선·공간배분 등 3개 선본 치열한 공약 소개

안나연 기자 na@khu.ac.kr

【서울】 제51대 총학생회(총학) 후보로 나선 3개 선본이 참여한 공약설명회가 지난 15일 진행됐다. 출마한 선본은 가나다순으로 '경희대로' 선본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후보, '더함' 선본 김도엽(정치외교학 2016) 정후보와 최지선(아동가족학 2017) 부후보, 그리고 '메이커(Make_KHU)' 선본 임선구(경영학 2014) 정후보와 박창민(정보디스플레이학 2017) 부후보다. 청운관 207호에서 6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공약설명회에서 각 후보자는 주요 공약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설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송태현(경영학 2014)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각 선본에게는 공약을 소개하는 15분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5분이 주어졌다. 공약 소개는 추첨에 의해 더함, 메이커(Make_KHU), 경희대로 선본 순서로 이어졌다. 공약설명회는 제50대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세 후보자 모두 교육권 강화에 대한 공약이 주효했다. 졸업이수학점 축소돼 정경대를 비롯한 5개 단과대학이 기존 130에서 120학점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대처, 성적 책정 근거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성적공개제도 등 단과대 별 교육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성적공개제도는 더함, 메이커, 경희대로 모두 도입할 것을 언급했다.

더함 김도엽 정후보는 “졸업이수학점 축소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만 이루어져서 어렵다”며 “대안적인 교육 서비스 방안을 학교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대 B0를(성적이 B0 이상인 수강생이 전체 수강생의 40%이상이 되도록 평가하는 제도), 호텔관광대 실습수업 확대 등 단과대별 시급한 문제를 총학 차원에서 말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메이커 임선구 정후보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반해 강좌 수는 고정적”이라며 “단과대학별로 부족한 강의에 대한 보충을 학교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등의 성적책정 근거를 공개하는 ‘세부성적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교육과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TF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희대로 김수혁 정후보는 “졸업이수 학



좌측부터 순서대로 경희대로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 더함 김도엽(정치외교학 2016) 정후보, 메이커 임선구(경영학 2014) 정후보다.

대로'라는 공약명에 맞게 우리학교만의 색을 드러내겠다”며 “배리어프리존과 가족존을 축제에 마련해 진정한 의미의 화합을 이룩하겠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공약 설명을 시작한 더함 김정후보는 “교육이 살아나야 미래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박규석(한의학 2015)씨는 공약으로 내건 성평등위 신설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정후보는 “생물학적인 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성차별이라 생각한다”며 남학생 휴게실 부재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김 정후보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껏 학생 자치에 관심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 누구보다 의지가 생겼기에 믿어달라”는 말을 하며 절을 했다.

두번째로 공약 설명을 진행한 메이커 임정후보는 “교내 운동시설 개선”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천연잔디가 조성된 대운동장을 언급하며 “인조잔디로의 전환은 2년 뒤나 이뤄질 수 있으나 지금부터 학교와의 협의를 진행해 신속한 전환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웅(정치외교학 2015)씨는 “최근 인조잔디의 유해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인조잔디로 바꾸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임 정후보는 “경기장 등에 천연잔디를 사용하면 예를 보면 시합 외엔 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봉쇄한다”며 “지속적인 운동장 이용을 위해선 인조잔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희대로는 공약 설명 시간 내에 주어진 공약을 모두 설명하지 못했다. 김 부후보는 “시간 관계상 준비한 공약을 전부 소개하지 못해 아쉽다”며 “남은 유세기간 동안 더욱 보강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경희대로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보이며 끝마쳤다.

공약설명회에 참석한 최정민(국문학 2018)씨는 “총학 후보자가 정책을 직접 얘기하는 것을 보니 학생 자치에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라며 “앞으로는 후보자가 설명한 공약을 얼마나 구체화하는 지가 관건”이라며 설명회 참석 소감을 전했다.

중선관위 송 위원장은 “유례없이 3개의 선본이 경쟁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공약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오는 20일과 21일에 각각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희대로 (김수혁 정후보, 김영우 부후보)	더함 (김도엽 정후보, 최지선 부후보)	메이커 (임선구 정후보, 박창민 부후보)
졸업이수학점 축소	학교 측에 보상 요구	대안적 교육 서비스 요구	교육과정에 학생 의견 반영 위한 TF 설치
공간 배분	•공용공간 활성화 •남학생 휴게실 증설	•문과대학 공간확보 프로젝트 •강의실 예약제 실시 •남학생 휴게실 증설	공간 활용 논의하는 학교 주체 간담회 요구
성적공개제도	도입	도입	'세부성적평가제도' 도입
열람실 사석화	•반납제도와 연계 •리모델링 통해 '제3열람실' 신설	체크아웃 시스템 도입	•좌석 발권 시스템 추가 및 개선 •시험 기간 중 열람실 지킴이 도입
학생 자치활동	정보없는 자치기구 다수 재편성 및 논의 예정	•총여학생회 폐지 •성평등위원회 신설	소모임, 동아리, 학회 활동 지원 위해 경희동아리대축제 진행

점 축소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과 보상을 요구하겠다”며 “또한 단과대학별로 적정 등록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어 “연구, 교육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한 대응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간문제 해결안도 제시됐다. SPACE21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며 지난 1학기부터 일부 단과대학이 신축관으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구 이과대 건물, 구 한의대 건물에 대한 공간 배분 문제가 주요한 공약으로 언급됐다. 더함과 메이커 선본은 학교와의 대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더함은 ‘문과대학 공간확보 프로젝트’, ‘강의실 예약제’ 도입, 남학생휴

게실(남휴) 증설을 공약했다. 경희대로는 교내 공간을 개선해 남휴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총여학생회(총여)를 비롯한 자치기구 전반에 대한 공약도 이어졌다. 더함 김 정후보는 “지금도 후보자를 내놓지 못한 것은 총여의 책임”이라며 “자체 회칙도 부재하며, 급진적 여성단체를 지원하여 소모적 논쟁에 빠져있는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어 “총여 폐지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성평등위원회(성평등위)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로 김 정후보는 “활동 및 역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자치기구가 많다”며 “학내 다양한 특별기

구, 자치기구에 대한 재편성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면 개교 70주년을 맞는 우리 학교의 축제도 언급됐다. 더함 김 정후보는 “문화에 꿈이 더해지는 축제를 만들겠다”며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협조전을 발령해 학생 참여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메이커 임 정후보는 “최대규모의 대동제를 보이겠다”고 말하며 “시간적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전부터 기획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리 간의 교류는 물론, 미대·음대·무용대가 모일 수 있는 ‘경희예술제’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경희대로 김영우 부후보는 “‘경희

2018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구성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경희의 '학문과 평화'를 드높인 업적을 기림으로써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시 : 2018년 11월 1일(목)~11월 22일(목)
- 대 상 : 교수, 직원(개인 및 단체)
- 시상분야 : 교육, 연구, 실천(3개 부문)
- 시상인원 : 부문별 약간 명
- 추천방법 : 첨부한 추천서 작성 후 제출(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 서울캠퍼스 생활과학대학 602호 커뮤니케이션센터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생활과학대학 602호 커뮤니케이션센터
 3. E-Mail : pr@khu.ac.kr
- 선정절차 :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 2018년 12월 중 (Magnolia 2018-1부 목련회의)에서 시상
- 문 의 : 커뮤니케이션센터 정민재 02)961-0024~6
-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